

# 광한루 역사적 의미 계승

### 남원시, 광한루원 정문에서 광한루 건립 600주년 기념 현판 제막식

남원시는 11일 광한루원 정문에서 광한루의 역사, 문화적 의미와 그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광한루 건립 600년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현판 제막식에서는 지역사회와 개인의 염원을 담은 타임캡슐 메시지를 시작으로, 광한루 연혁보고, 기념사, 현판 제막식, 광한루원 답사가 이어졌다.



남원시는 11일 광한루 건립 600년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여름 휴가철인 8월을 600년 기념주간(8.2~8.10)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기념축하공연과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광한루원 무료 야간개장시간을 연장운영(19:00~21:00)해 전국 대표문화유산 관광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광한루원은 1419년대에 조성된 누정으로,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위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다가 퇴관해 남원으로 내려온 황희가 그의 선조 황감평이 지은 서실 일제(逸齋)를 헐어 새로 누정을 세우고 광통루(廣通樓)라 칭한 것에서 연유하며, 수차례 개축이나 보수하다가 1580년대에 본격적인 개축과 정원이 만들어졌다.

광한루원은 명승 33호로 지방건축의 백미로 4대 대표 누각 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광한루원 일원과 요천일원에서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대한민국 최고 전통문화축제인 제89회 춘향제가 예서 펼쳐진다.

이환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광한루 600년을 맞은 올해를 '광한루원 방문의 해'로 정하였다며, 역사문화의 산실이자 사람과 이상향에 대한 유토파이를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관광명소로 가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논에 콩을 심으면 지원금 '꽉꽉'

### 임실군,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대폭 확대

임실군이 논에 콩을 재배토록 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논 타작물 재배 일환으로 논 콩 재배 확대를 위하여 우수관능농협 및 임실농협과 협력하여 수매 장려금을 대폭 지급하기로 했다.

논콩 수매장려금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농협과

논콩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수매물량에 대하여 임실군과 농협이 각각 500원씩 kg당 1,000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특등 기준 논콩 수매가격은 가마(40kg)당 18만원이며 장려금 4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수매 농가는 22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임실군의 벼 재배 감축 목표는 284ha로 타 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있

다. 군의 재배 여건을 고려 장류산업의 원료인 콩을 집중 육성 원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 콩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쌀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콩 재배 확대사업을 농협과 협력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공연 레퍼토리를 선보임으로써 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육구 총족에 기여하고자 오는 20일 오후 3시 예음헌에서 '풍류마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가 출연해, 경기소리의 소프라노, 판소리의 알토, 서도소리의 테너, 판소리의 바리톤, 아카펠라의 베이스 등 다섯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국악을 아카펠라로 재

탄생 시키고, 판소리, 경·서도 민요 등 우리소리 뿐만 아니라 재즈,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루고, 한 국음악과 월드뮤직의 결합도 시도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전통의 판소리를 국악아카펠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사랑가, 시르렁 실근,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무료이고, 전화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예약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시, 농촌희망 메시지

### 전달 사진 공모전 7월까지

남원시가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의 추억을 심어준다는 계획으로, 농촌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다.

남원시 농촌주민으로 디지털 파일 전환화소이상, 컬러 디지털 사진을 온 라인으로 7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사진은 심사를 거쳐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발효소스토굴에 최신형 VR체험콘텐츠를 구축했다

## 발효소스토굴에서 체험으로 '흥미 UP'

### 순창군, VR체험 콘텐츠 구축

순창군이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는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에 최신형 VR체험콘텐츠를 구축했다. 이번 콘텐츠는 군이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설치한 VR체험 콘텐츠 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체험감과 재미를 높였다.

신규로 구축한 콘텐츠는 FPS 방식으로 참가자가 콘텐츠내 1인 플레이어가 되어 직접 참여해 스킬과 재미를 선사한다.

더욱이 요즘 토플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발효커피 카페를 마련

해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에게 잠깐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VR체험을 한 김모(16)군은 "토굴에서 VR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놀랐다"며 "발효소스토굴에 와서 장류에 대해 여러 가지도 알게 되고 다양한 체험도 하게 되어 매우 특별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발효소스토굴을 마음껏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진화하는 발효소스토굴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연다.

## 순창 일품공원, 첫째·셋째주 토요일 버스킹 공연

순창군이 매일 첫째, 셋째주 토요일에 일품공원 소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연다. 이 공연은 순창군이 후원하고 5~6개 팀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연은 오는 13일 오후 6시에 첫 포문을 열고 5월부터는 첫째, 셋째주 토요일 동일한 시간대에 공연한다.

공연은 군민과 순창을 찾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함은 물론, 아마추어 동호회 회원들이 관객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공연을 주관하는 생문동은 관내 54

개 동호회와 10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순창군 대표 단체인, 버스킹 공연이 있는 날이면 소속 동호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버스킹 공연을 이끈다. 공연이 열리는 일품공원 소공연장은 순창읍내 위치한 도심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군민들로 북비 공연 장소로 제격이라는 평이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일품공원내 겨우로 상상공연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보일 것"이라며 "자녀 작지만 의미 있는 공연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 금연클리닉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흡연자들의 금연결심을 도와 흡연의 폐해를 감소시키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한편, 금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를 찾기가 힘든 직장, 학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관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및 학교, 단체 중 금연희망자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직접방문 84명, 내소 278명의 흡연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금연관련 사항은 보건소금연클리닉(620-7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1:1상담,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상담 대치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제공 등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를 높이기 위해 6개월 금연성공 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공익의 건강생활과장은 "흡연자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이동금연 클리닉을 적극 이용한다면 개인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

###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남원소방서는 11일 남원문화체육센터서, 의용소방대원 및 가족 800여명과 이환주 남원시장, 이용호 국회의원, 윤지홍 남원시의장, 도연하회 오영진 남대장과 심미혜 여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2019년 남원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화재현장 및 재난 현장에서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위한 자리였다.

소방기술경연분야(소방호스프리기, 수관연장 및 방수자재)와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연합회는 사랑의 쌀 50포를 남원시에 기증했다.

한편 조용주 남원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